

“전북도 청년정책과 신설 환영”

김슬지 도의원, 민선8기 조직개편 관련
청년정책 후퇴 우려 의견 반영된 듯
청년정책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이 청년정책을
위축시킬 수 있
다는 점을 지적
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청년정책 전담
부서 축소·조정
은 대부분의 지
방정부가 청년정
책 전담부서 인력을 강화하는 등 청년
정책 확대 추세와 역행”한다고 지적하
면서 “일자리 위주의 청년정책을 탈피
하고 주거 복지 교육 문화 등 청년
의 삶 전반을 살피기 위해 청년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정책 전반의 콘트
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도가 의견수렴
을 통해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
는 안으로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도 “신설되는 청년정책과가 전북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
다”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청년정책 추
진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지난달 25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을 마치고 7일 전북도의회에 개편(안)
을 제출했다. /김경수 기자

축소되는 것으로 보였던 전북도의
청년 정책 전담 부서가 청년정책과로
확대 설치된다. 새로이 설치되는 청년
정책과는 청년정책의 종합 컨트롤타
워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축소·조정하
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던 전

북도가 입법예고를 마친 최종안에서
는 청년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
당, 비례대표)은 지난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8기 첫 번째 조직개편안에
담긴 청년정책 전담부서 축소·조정

추석 인사

“서로 소통하며 사랑과 배려 배우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감 서거석입니다.
민족의 큰 명절 추석,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자연의 풍요로움에 감
사하고 희망을 나누는 날입니다.
교육이 시작되는 생애 첫 학교는
가장 중요합니다.
올 추석 ‘납상머리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서로 소통하며 사
랑과 배려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
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계속되고
있지만 함께 노력하여 일상을 회

복했으면 합
니다.
전북교육청
도 학생중심
미래교육’으
로 아이들의
실력과 인성
을 키워주며
소통과 협치
를 통해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
분께 기쁨과 희망을 드리겠습니
다.
환한 보름달처럼 넉넉한 마음으
로 가족 이웃과 함께 사랑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한가위 되시길 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폐교활용, 문화·복지 서비스향상 목표로 해야

익산시의회, 연구용역 보고회

익산시의회는 지난 6일 의원연구단
체가 주관하는 ‘익산시 폐교활용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익산시의회 폐교활
용방안연구회 조남석 의원(대표의원)
을 비롯한 9명의 시의원과 익산시 관
계공무원, 연구용역을 맡은 원광보건
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이 참석
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관내 폐교현황
을 파악하고 입지적 특성과 조건을 고
려해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한 현실적
인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것.

연구모임의 의원들은 원광보건대학
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국제사제 파악,
현장방문, 상시기관 및 관계법령의 정
책검토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익산시 폐교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
이다.

이 자리에 참여한 의원들은 사업추
진 근거로 활용할 연구용역이나 민공
조사 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것과
지역주민과의 협력방안도 반드시 필
요하다는 의견을 용역사 측에 제시했
으며 비숙한 조건을 가진 타지역 폐교
의 벤치마킹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농촌 폐교는 학교의 존폐를
넘어 지역의 역사성과 애환 등이 사
라지는 것과 같으므로 폐교활용에 있
어 재정효과성 보다는 농촌지역의 문
화·복지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조남석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본 연
구회에서 제시하는 방안이 폐교활용
활성화에 단초가 되어, 익산시와 도교
육청의 정책방향 제안뿐만 아니라 농
촌 폐교 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
를 다졌다.

한편, 익산시의회 폐교활용방안연구
회는 조남석 대표의원을 비롯해 조규
대, 박종대, 최재현, 손진영, 이종현,
송영자, 소길영, 조은희 의원 등 9명으
로 구성했다.

/익산=이재춘기자



모래내시장 현장행정에 나선 김관영 도지사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앞둔 7일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김관영 전북지사가 전통시장 이용 장려 캠페인
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 도의회 차원 대응책 모색

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열어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대표
의원 최영열)는 지난 5일 도의회 세미
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전
북도의회 의회 운영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
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각종 법·제도 실태분석 및 후속
입법과제의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
로 비회기임에도 연구회 소속 의원뿐
만 아니라 국주영은 의장과 농산업경
제위원회의 내인권 위원장까지 참석
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발제에 나선 책임연구 윤수봉 의원
(완주)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제도적인 미비

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기반보전의 필
요성을 제시했다.

전북대학교 조승훈 교수는 “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
방의회의 기능 강화, 인사권 독립 등
제12대 의회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직은 제도적인 뒷받침
이 미비하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
현을 위한 추가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해석 의원(남원)은 “실질적인 주
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개정된 지방
자치법에 미비점이 많다”며 보완점 및
후속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전용태
의원(진안)도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
치를 열망했던 도민에게 큰 상실감을
줬다”며 주민자치권 확대 필요성에 대
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권요안 의원(완주)은 “의회의 예산
권과 조직권이 확보돼야 의회의 독립

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후속 법안 필
요성에 힘을 실었고, 윤정훈 의원(무
주)은 “의회의 예산편성권 확보를 통
해 인구소멸지수가 높은 지역에 예산
의 차별권을 부여해야 국토의 균형발
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정읍)은 “개정안에 포
함된 정책지원관계 도입뿐만 아니라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보좌관
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동규 의원(군산)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며
특례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
하다”고 말했다.

최형열 대표의원(전주)은 “지방자
치 및 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기
능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더욱 추진
력을 얻을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자치
권 확대를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교육감 공약사항의 합리적 관리

도교육청, 공약관리위원회 공개 추첨... 외부위원 22명 선발

전북도교육청이 제19대 교육감 공약
사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공약관리
위원회 공개추첨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7일 오후 2시 창조내래
파란 회의실에서 ‘제19대 공약관리
위원회 공개 추첨’을 갖고 총 22명의 외
부위원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 추첨은 위원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
역·성별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지역별로는 전주 5명, 군산·익산 3
명, 그 외의 시·군은 각각 1명씩 선
발했다.
19대 교육감 공약관리위원회는 이날
선발된 외부위원 22명과 내부위원 15
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 공약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위원회는 앞으로 공약사항 실천계획,
이행실적, 변경·폐기에 관한 사항 및
대안 제시,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평
가한다.

위촉식은 오는 10월 19일 가질 예정
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 간이
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약 이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더 많은 주민
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약관리위
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면서 “공약사항
의 합리적인 추진과 관리, 실천을 위
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약관리위원회 공개추첨 결과는 도교
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민선8기 도정 목표 달성 도민참여 과제 발굴

전북연구원, 연구과제 공모 시상... 유희공간 활용

전북형 청년공유주거공간 방안 제안 등 총 2편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민선8기
전북도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개
발을 위해 지난 8월 실시한 제10회 연
구과제 도민공모에서 총 두 편의 우수
제안과제에 대한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모색을 위
해 기업유치, 민생경제, 농생명 등 3개
분야 정책 발굴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제안된 연구과제 중 전문가 회의를 통
해 수상과제를 선정했다.

선정 연구과제는 우수상으로 선정된
김승현씨의 유희공간을 활용한 전북
형 청년공유주거공간 방안 제안 과 장

려상으로 선정된 최용식씨의 ‘전북도
주력산업 ‘농생명분야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 지역정착지원(한국농수산대학
교 사제위주) 연구’ 총 두 편의 연구
과제이다.

권혁남 원장은 “새로운 민선8기 도
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개발을 도민
과 함께 수립하고자 이번 공모를 진행
하였다”며 “전라북도 도정 발전을 위
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
드린다”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로컬 온 LOCALFOOD 익산
www.iksanfood.co.kr

어양점 (익산시 어양동 481-1)
모현점 (익산시 선화로1길 57-6)

익산물